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1

Table listing EBS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2일(음 9월 10일 辛未)

Table of daily fortune telling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columns for sign, date, and fortune text.

“허탈한 눈물연기 해보고 싶었어요”

영화 ‘그놈이다’ 장우 역 주원

신기에 가까운 의술을 선보이는 ‘용팔이’로 시청률 20%를 넘기며 흥행 대박을 낸 배우 주원(28·사진)이 시골 동네 청년으로 힘을 쫓고 돌아왔다. 28일 개봉하는 스릴러 영화 ‘그놈이다’(감독 윤준형)에서 주원은 재개발을 앞둔 부둣가 마을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빼앗길 위기에 처한 집 한 칸과 여동생뿐인 청년 장우 역을 맡았다. 주원은 후출극한 모습으로 허탈한 눈물을 삼키는 이 역할이 자신에게 꼭 필요했고, 꼭 하고 싶었다고 했다. “정말 하고 싶었어요. 처음 어머니께 ‘라면만 먹고 살아도 좋다’며 배우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던 때부터 세웠던 계획이 있어요. 20대에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색깔이 정해졌다면 30대에는 변화를 줘서 제가 봐도 멋있고 색다른 선배들 같은 배우가 되자. 그러려면 지금 장우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30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꼭 도전하고 싶었죠.”



“정말 하고 싶었어요. 처음 어머니께 ‘라면만 먹고 살아도 좋다’며 배우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던 때부터 세웠던 계획이 있어요. 20대에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색깔이 정해졌다면 30대에는 변화를 줘서 제가 봐도 멋있고 색다른 선배들 같은 배우가 되자. 그러려면 지금 장우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30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꼭 도전하고 싶었죠.”

“영화에 ‘항방’이 되는 액션은 없어요. 감동님이 저를 캐스팅한 이유가 장우가 강한 남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가 오직 동생을 위해 뛰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액션은 많이 힘들었어요. 몸보다 정신적으로 감정이 들어간 액션이었으니까요.”

“그놈이다”는 주원에게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영화배우로서 생각을 넓혀준 작품이다. 한 속사 식구지만, 함께한 작업은 이번이 처음인 배우 유해진(민약국 역)도 그 점을 일깨워준 선배다.

“이 영화만 5년 동안 준비한 감독님은 다른 얘기를 하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해진 형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캐릭터와 유해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작품이 이렇게 하면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고 욕심을 낼 줄도 알고, 존경스러워요. 저도 작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20대에는 ‘멋있어 보여야 하는데’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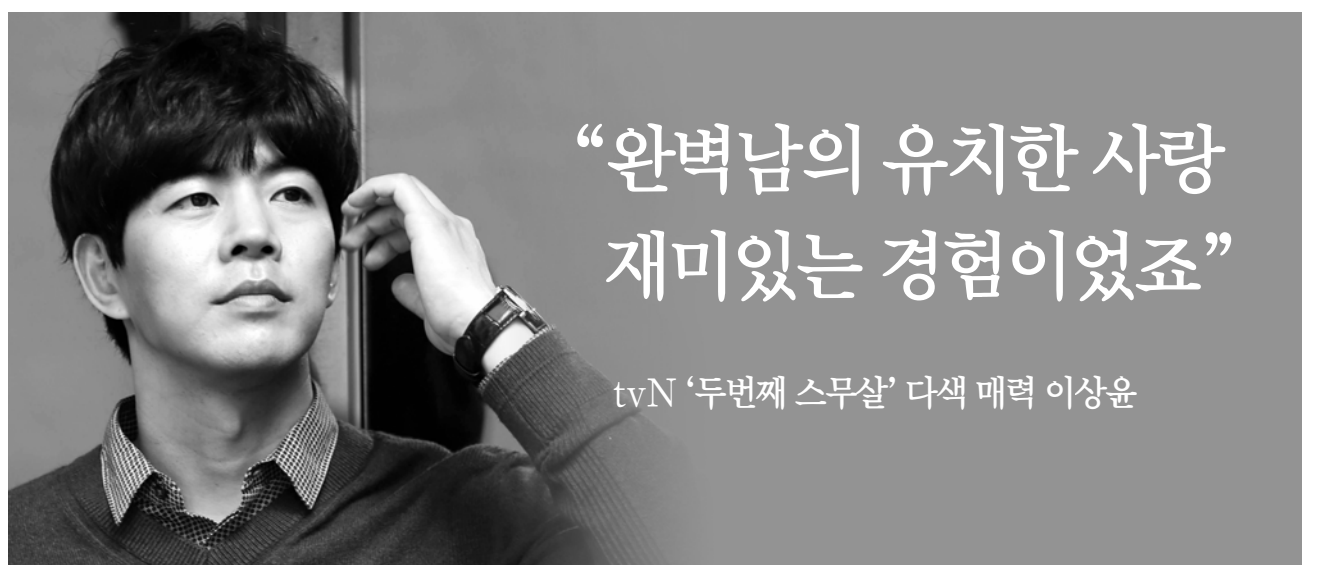
은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다면 그런 걸 버리고 작품이 잘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죠.”

영화배우 주원에게 “함께한다는 느낌을 안기는” 무대라면, 드라마는 “배우로서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생기는” 무대다. 그는 ‘제빵왕 김탁구’를 시작으로 최근 ‘용팔이’까지, TV 드라마로 줄줄이 히트를 쳤다.

“드라마는 제게 ‘모두를 신경 써야 하는 곳’이에요. 감독님도, 스태프도, 다른 배우들도. 보조출연자도 모두 중요하죠.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많이 생겼어요. 드라마는 환경이 빽빽해서 모두 바쁘니까, 이 작품은 내 작품이고 내가 모두를 신경 써야 한다. 주변배우인 나를 모두 챙겨주니 내 여유를 다른 사람한테 풀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에게는 영화와 드라마 외에 하나의 무대가 더 있다. “애니지를 모두 쏟아부을 수 있는” 뮤지컬이다. 작년에도 ‘고스트’에서 주연을 맡았다. “정말 소중한 곳이에요. 공연을 하다 보면 무대하고 관객석이 분리되면서 내가 실제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짜릿해요. 관객이 연예인, 배우가 아니라 사람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있는 그대로 캐릭터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정말 좋아요.”

이제 자기작을 결정하지 못한 그에게 지금 가장 큰 욕심은 이 영화의 흥행이다.



“완벽남의 유치한 사랑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tvN ‘두번째 스무살’ 다색 매력 이상윤

“스무살로 돌아가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볼 것 같아요. 미팅도 해보고 배낭여행도 가고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요. ‘두번째 스무살’에서 민수가 워킹홀리데이를 간 것처럼 해외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문화와 생각을 일찍 접했다면 제 인생도 또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tvN 드라마 ‘두번째 스무살’을 막 마친 배우 이상윤(34·사진)은 변화에 목말라 있는 듯했다. 그는 “남들 앞에서는 멋지기로 한 성공한 30대 남자가 첫사랑 앞에서 유치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여러 성격이 드러나는 캐릭터는 처음이어서 재미있게 연기했다”며 “이게 연기하는 재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캐릭터에 대한 욕심도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대 출신으로 연예계 대표 ‘엄친아’로 꼽히는 그는 요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연기를 하기 전에는 더 내성적이고 소심했는데 점차 외향적인 쪽으로 변하고 있다”며 “저를 보통 ‘훈남’ 이미지로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또다른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 드릴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두번째 스무살’에서 20년간 간직해온 첫사랑 하노라(최지우 분)를 우연히 다시 만난 차현석 역을 연기했다. 하노라가 이미 ‘실질적 이혼 상태’였고 잠시지만 시한부인 줄 알았던 상황이었지만, 늦깎이 대학생이 된 여자가 어릴 적 첫사랑의 대시를 받고, 결국 이혼한 뒤 새로운 삶을 산다는 ‘두번째 스무살’은 자칫하면 그렇고 그런 통속 드라마로 흐를 수 있었다.

“노라가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불륜이나 일방적인 집착으로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남자로서의 감정이 전혀 안 나타나면 멜로가 안되잖아요. 제가 잘못 표현하면 이야기 전체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

민을 많이 했죠.” 친구와 남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던 이상윤은 “첫 대본 읽기 때부터 절대로 불륜으로 보이면 안된다고 당부를 하셨기에 연기도 신경을 썼지만 시한부나 남편의 불륜, 버티리스 트 등 현석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장치를 대본 곳곳에 만들어 주셨다”며 공을 소현정 작가에게 돌렸다.

노라를 몰래 챙겨주면서도 겉으로는 가질하게 대하는 현석 캐릭터에 대해 이상윤은 “남자들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주기가 쉽지 않은데 몰래해야 할때는 몰래, 강하게 나서줘야 할때는 강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다”며 “제가 봐도 ‘멋진 놀이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저는 챙겨주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은 하지도 못하고 친절하지도 않다. 차현석과의 싱크로율은 50% 정도”라며 웃었다.

하노라 역의 최지우와는 2007년 MBC TV ‘에어시티’ 이후 8년 만에 재회했다. 당시 최지우는 여주인공, 이상윤은 신인배우로 단역이었다. 노라 역에 최지우가 캐스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간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그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발연기’라는 이야기는 안 들을 것 같다”고 안도하기도 했다.

“엄친아” 이상윤은 이렇게 말을 맺었다. “저는 많이 부족한 데도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히 ‘모두들 꿈에 도전하세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경험상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면 그 다음 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결과를 생각하며 일할 땐 예전만큼 연기가 즐겁지 않고요. 이상적이지 모르지만 어떤 일인데 마친까지 아닐까요?”

연휴뉴스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